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가령 ‘국’과 ‘물’은 따로 발음하면 제 소리대로 [국]과 [물]로 발음되지만, ‘국물’처럼 ‘ㄱ’과 ‘ㅁ’을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 ‘ㄱ’이 [ㅇ]으로 바뀐다. 이것은 국어에서 장애음\*과 비음을 자연스럽게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일어나는 현상이다. ‘국화[구조]’, ‘중다[조:타]’처럼 예사소리와 ‘ㅎ’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도 국어에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자음들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음운 변동으로 볼 수 있다. 비음화와 자음 축약은 장애음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ㅎ’의 앞이나 뒤에서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와 같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를 살펴보면, 예사소리인 파열음 ‘ㅂ, ㄷ, ㄱ’ 뒤에 예사소리 ‘ㅂ, ㄷ, ㄱ, ㅅ, ㅈ’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 예를 들면, ‘국밥’은 반드시 [국빡]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로 발음되는 단어를 ‘갑자기’로 표기하더라도 발음할 때에는 예외 없이 [갑짜기]가 된다.

한편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존재한다. ‘(신을) 신고’가 [신:꼬]로 발음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명사인 ‘신고(申告)’는 [신고]로 발음되듯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비음과 예사소리는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

국어의 규칙적인 음운 변동 중에는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발음들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장애음: 구강 통로가 폐쇄되거나 마찰이 생겨서 나는 소리.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이룸.

- ① ㉠과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과 ㉢에서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을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③ ㉡와 ㉢는 발음될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⑤ ㉣와 ㉤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뀐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가끔, 어찌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잔뜩, 훨씬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국수, 몹시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딱딱	딱닥

- ①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소리가 되므로 ‘가끔’은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 ②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때 규칙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몹시’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③ ‘딱딱’은 ‘딱닥’으로 적으면 표준 발음이 [딱닥]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적지 않는다.
- ④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표준 발음인 [국쑤]로 발음되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
- ⑤ ‘잔뜩’은 비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했다는 뚜렷한 까닭이 있으므로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 집념[짐념]도 강하다.
- 춤을 ㉡ 곧잘[곤잘] 춘다.
- 책상에 ㉢ 놓고[노코] 가라.
- 음식을 ㉣ 담기[담끼]가 힘들다.
- 모기한테 ㉤ 뜯긴[뜯깁]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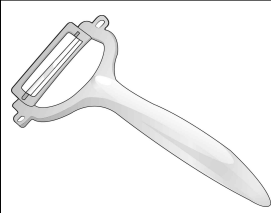
1)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 11번~15번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지난 시간에 모둠별로 <그림>의 대상을 지칭하는 새말을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새말들의 단어 구조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모둠 활동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gt;</p>	새말
	㉠ 오이칼, 껍질칼
	㉡ 갈작갈작칼, 사각사각칼
	㉢ 까개, 깎개
	㉣ 긁도구, 밀도구
㉤ 박박이, 쓱쓱이	

- ① ㉠은 명사 어근들을 결합하여 만든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은 부사 어근과 명사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은 동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 ④ ㉣은 명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 ⑤ ㉤은 부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 ① ㉠, ㉢에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 ㉢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 ④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15.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습 활동	다음 자료를 보고, 중세 국어의 조사에 대해 탐구해 보자.
학습 자료	㉠. <b>드리</b> 즘은 <b>ㄹ</b> 때 <b>비취요미</b> 곱하니라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침과 같으니라) ㉡. <b>네</b> 후(後)에 <b>부테</b> 득외야 (네가 후에 부처가 되어) ㉢. <b>부텃</b> 모미 여러 <b>가짓</b> 상(相)이 ㄹ즈샤 (부처의 몸이 여러 가지의 상이 갖춰져 있으시어) ㉣. <b>사스릭</b> 등과 <b>도즈기</b> 입과 눈 (사슴의 등과 도적의 입과 눈) ㉤. 사꺠릭 <b>모물</b> 득(得)호고 <b>부터</b> 를 맛나 잇느니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잇느니)
활동 결과	(가)

- ① ㉠의 ‘드리’와 ‘비취요미’에서 ‘이’가 각각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② ㉡의 ‘네’에서 ‘ㅣ’가 주격 조사로, ‘부테’에서 ‘ㅣ’가 보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③ ㉢의 ‘부텃’과 ‘가짓’에서 ‘스’이 모두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④ ㉣의 ‘사스릭’와 ‘도즈기’에는 ‘익’가 각각 기준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⑤ ㉤의 ‘모물’, ‘부터를’에는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1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2)

< 보 기 >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 네 가지 변동 중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음운이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을 겪기도 한다.

- ㉠ 날날이→[난 : 나치]
- ㉡ 녀두리→[넉뚜리]
- ㉢ 입학식→[이팍씩]
- ㉣ 첫여름→[천너름]

- ①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과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탈락이다.
- ③ ㉠에서 발음된 ‘ㄷ’과 ㉢에서 발음된 ‘ㅍ’은 공통적으로 음운이 축약된 것이다.
- ④ ㉠에서 ‘ㅌ’이 ‘ㄴ’으로, ㉢에서 ‘스’이 ‘ㄴ’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교체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ㄷ’이 ‘ㄱ’으로, ㉣에서 ‘스’이 ‘ㅍ’으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횟수는 다르다.

2)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 11번~15번

12. <보기>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이런 결합 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기도 해서,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데 다시 접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때 ㉡ 접사가 결합되어 어근의 품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 ① 균것질    ② 바느질    ③ 겹겹이    ④ 다듬이    ⑤ 헛웃음

13.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1. 밖 [명사]

- 「1」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 ◻ 이 선 밖으로 나가시오.
- 「2」 겹이 되는 쪽. 또는 그런 부분. ◻ 옷장 안은 깨끗했으나, 밖은 급한 자국으로 엉망이었다.
- 「3」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 예상 밖으로 일이 복잡해졌다.

2. 밖에 [조사]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 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3. 뜻밖-에 [부사]

생각이나 기대 또는 예상과 달리. ≒ 의외로. ◻ 아버지께 여행을 가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뜻밖에도 흔쾌히 허락하였다.

—< 보기 2 —

출입문 ㉠ 밖 복도는 시끌시끌하다. 이런 생기를 느낄 수 있는 날도 ㉡ 머칠 밖에 남지 않았다. 졸업이 가까워지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 뜻밖에도 아쉬움이 더 크다. 추억이 많으니 그럴 ㉣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졸업 후 주어질 ㉤ 기대 밖의 선물 같은 시간들을 그려 보며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 ① ㉠은 <보기 1>의 1 「1」의 의미로 쓰인 것이군.
- ② ㉡은 <보기 1>의 2가 사용되었으므로 '머칠'과 '밖에'를 붙여 쓰야겠군.
- ③ ㉢은 <보기 1>의 3이 사용되었으므로 '의외로'라고 바꿔 쓸 수 있겠군.
- ④ ㉣은 <보기 1>의 1 「2」의 의미이므로 '수'와 '밖에'를 띄어 쓰야겠군.
- ⑤ ㉤은 <보기 1>의 1 「3」의 용례로 추가할 수 있겠군.

[14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나뉘는데, 겹문장에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대등하게 혹은 종속적으로 결합된 문장을 말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이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가지며, '-고', '-지만'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목적 등의 의미를 가지며, '-아서/-어서', '-(으)면', '-(으)러'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다.

한 문장이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다른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그것을 안은문장이라 하고, 이때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한다. 안긴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명사절은 '-(으)ㄴ', '-기'가 붙어 만들어지며 문장 안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관형절은 '-(으)ㄴ', '-는', '-(으)ㄴ' 등이 붙어 뒤의 체언을 꾸민다. 부사어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은 다른 절들과 달리 특별한 표지(標識)가 붙지 않는다. 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 등을 인용한 것을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나 '하고'와 같은 조사가,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간접 인용절에는 '고'와 같은 조사가 쓰인다. 한편 안긴문장의 한 요소가 안은문장의 요소와 동일한 경우 생략될 수 있으며,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기기도 한다.

[A]

중세국어의 문법 자료에서도 겹문장이 확인된다. 이어진문장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되는데,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어미가 붙어 성립되기도 하였다. 안은문장의 경우 명사절이 '-음/-음'이나 '-디', '-기'에 기대어 나타났으며, 관형절은 '-(으)ㄴ' 외에 '스'에 기대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부사절은 현대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인용절이나 서술절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표지 없이 나타났다.

1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 ㄴ.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 ㄷ.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 ① ㄱ은 ㄴ과 달리,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② ㄴ은 ㄱ과 달리, 부사절이 사용되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 ③ ㄷ은 ㄴ과 달리,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한 절이 있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ㄴ과 ㄷ은 모두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중세] 只솔히 멀면 乞食히디 어렵고

[현대어 풀이] 마을이 멀면 걸식하기 어렵고

— 「석보상절」 —

(나)

[중세] 이 東山은 남기 豆糲씨 노니는 짜히라

[현대어 풀이] 이 동산은 나무가 좋으므로 내가 노니는 땅이다.

— 「석보상절」 —

(다)

[중세]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뵘씨 곳 도쿄 여름 하느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용비어천가」 —

- ① (가)의 ‘乞食히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절을 만들 때 ‘-디’가 사용되었군.
- ② (나)의 ‘남기 豆糲씨’가 ‘이 東山은’의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서술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다)의 ‘곳 도쿄’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 ‘-고’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가)의 ‘只솔히 멀면’과 (다)의 ‘불휘 기픈’을 보니 ‘-(으)ㄴ’이 붙어 관형절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나)의 ‘豆糲씨’와 (다)의 ‘뵘씨’를 보니 현대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표지가 사용되었군.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3)</sup>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의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 등을 수식한다.

한편 이들 ‘-(으)ㄴ’과 ‘-이’가 중세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으)ㄴ’은 중세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으 /으)ㄴ’과 명사형 전성어미 ‘-음/음’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흔 거름 나소 거름(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에서 확인된다. ‘견-’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으 )ㄴ’과 ‘-음’이 각각 결합한다.

앞서 말한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 /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나뭇 노퍽(나무의 높이)’와 ‘노퍽 느는 저비(높이 나는 제비)’에서 확인된다.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다. 그런데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이’가 결합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흔 여름 여루미(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의 품사가 다르겠군.
- ② ‘거름’과 ‘거름’의 형태를 보니, ‘거름’은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동사의 명사형이겠군.
- ③ ‘거름’과 ‘노퍽’의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 국어 ‘높-’에는 ‘-음’이 아니고 ‘-음’이 결합하겠군.
- ④ ‘노퍽’과 ‘노퍽’의 형태를 보니, ‘노퍽’은 파생 부사이고 ‘노퍽’은 파생 명사이겠군.
- ⑤ 중세 국어의 형용사 ‘곧다’, ‘굳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군.

1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것은?

- ①  많이 앞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 ②  멀치 봄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 ③  요즘은 상품을 큰 뭍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무용수들이 군무를 출과 동시에 조명이 켜졌다.
- ④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 일은 맡기고 싶지 않다.
- ⑤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11번~15번(2018년 6월 시행)

13.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긱간, 셋방, 숫자, 찻간, 뿃간, 횃수’는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 ㉠ 단어 분류상 ‘합성명사’일 것.
-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고유어+ 고유어 ¶ 고유어+ 한자어 ¶ 한자어+ 고유어
-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남.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각각의 쌍은 위 조건 ㉠~㉣중 [1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같던 예이다.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도매가격]	도맷값[도매갑]
㉡	전세방[전세빵]	아랫방[아래빵]
㉢	버섯국[버설국]	조갯국[조개국]
㉣	인사말[인사말]	존댓말[존댄말]
㉤	나무껍질[나무껍질]	나뭇가지[나무까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에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

○ 탐구 자료

	비표준 발음	표준 발음
㉠ 굵는	[굵른]	[궁는]
㉡ 짹네	[짹네]	[짹레]
㉢ 끈기고	[끈기고]	[끈키고]
㉣ 뜯지	[뜯찌]	[뜯치]

○ 탐구 내용

㉠의 비표준 발음과 ㉡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 ㉠ )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과 ㉡의 비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 ㉡ )가 나타난다. ㉢과 ㉣의 표준 발음은 ( ㉢ )만 일어난 발음이다.

- |   | ㉠   | ㉡     | ㉢      |
|---|-----|-------|--------|
| ① | 유음화 | 비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② | 유음화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 ③ | 비음화 | 유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④ | 비음화 | 유음화   | 된소리되기  |
| ⑤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 |

15.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어말 어미 ‘-더-’는시간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같이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수 있다.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함께 쓰인다. 단,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 ① ㉠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 ② ㉡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 ③ ㉢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믿더라?
- ④ ㉣ : 기어이 우수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라?
- ⑤ ㉤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http://www.facebook.com/LegendStudy)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는데, 어근이 두 개 이상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A] 합성어는 형성 방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따라 어근을 결합한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논밭’,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굳은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스며들다’ 등은 국어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열법으로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반면에 용언의 어간이 명사에 직접 결합한 ‘덧밥’,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오르내리다’ 등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없는 단어 배열법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어 합성법은 중세 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바느실(바느실)’,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저르니(젊은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니러서다(일어서다)’ 같은 통사적 합성어와 ‘빌먹다(빌어먹다)’와 같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가 그러한 예이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 ‘뛰다’와 ‘놀다’의 합성어 형태로는 비통사적으로 결합한 ‘뛰놀다’ 하나만 확인되고 있는데 현대 국어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인 ‘뛰놀다’와 통사적 합성어인 ‘뛰어놀다’의 두 가지 합성어 형태가 모두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현대 국어에는 하나의 합성어 형태로만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는 두 가지 합성어 형태로 모두 쓰였던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11. [A]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결합 방식	합성어의 종류
①	어깨동무	명사 + 명사	통사적 합성어
②	건널목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통사적 합성어
③	보살피다	용언의 연결형 + 용언의 어간	통사적 합성어
④	여닫다	용언의 어간 + 용언의 어간	비통사적 합성어
⑤	검버섯	용언의 어간 + 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4)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 11번~15번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합성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賈鍊이 슬허 <b>눈뿔</b> 내요되	<번역 소학>
[현대 국어] 가속이 슬퍼 눈물을 흘리되	
(나) 홀기 어울워 <b>즌흙굴</b> 링ᄇ라	<능엄경언해>
[현대 국어] 흙에 어울러 진흙을 만들어	
(다) 그디 가아 <b>아라듣게</b> 니르라	<석보상절>
[현대 국어] 그대가 가서 알아듣게 말하라.	
(라) 그지업슨 소리 세계에 <b>숫나디</b> 묻흐면	<월인석보>
[현대 국어] 끝이 없는 소리가 세계에 숫아나지 못하면	
(마) 싸하셔 <b>소사나신</b> … 菩薩 摩訶薩이	<석보상절>
[현대 국어] 땅에서 숫아나신 … 보살 마가살이	

- ① (가)의 ‘눈뿔’은 현대 국어의 ‘눈물’과 같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즌흙’은 현대 국어의 ‘진흙’과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의 ‘아라듣다’는 현대 국어의 ‘알아듣다’와 같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④ (라)의 ‘숫나디’는 현대 국어의 ‘숫아나다’와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⑤ (라), (마)를 보니 현대 국어의 ‘숫아나다’는 중세 국어에서 두 가지 합성어의 형태로 모두 쓰였다고 볼 수 있겠군.

13. <보기>는 표준 발음법 중 ‘된소리되기’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ㄷ(ㄷ, ㅌ, ㅍ), ㅅ(ㅅ, ㅆ, ㅈ, ㅊ, ㅌ), ㅈ(ㅈ, ㅊ, ㅌ,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국밥’과 ‘(계란을) 삶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② ‘꽃다발’과 ‘(그릇을) 훑지만’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③ ‘(시를) 읊조리다’와 ‘(죽을) 먹을지언정’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④ ‘(바닥에) 앉을수록’과 ‘(몸을) 기댈 곳’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살살이) 훑다’와 ‘(내가) 떠날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14. <보기>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
- ㉡ 나는 자전거를 {못 탄다/타지 못한다}.
- ㉢ 컴퓨터를 너무 오래하지 {\*않아라/\*못해라/마라}.
- ㉣ 시간이 {\*못 넉넉하다/넉넉하지 못하다}.
- ┌그녀는 결코 거짓말을 {\*했다/하지 않았다}.
- └그녀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하지 않았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을 보니, '못하다'는 앞말의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어 뒷말을 부정하기도 하는구나.
- ② ㉡을 보니,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부정 용언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는구나.
- ③ ㉢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서는 '않다'나 '못하다'가 아니라 '말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 ④ ㉣을 보니,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부정 부사 대신 부정 용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 ⑤ ㉣을 보니, 부사에 따라 반드시 부정 표현이 함께 쓰여야 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15. <보기>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선생님: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요. 이때,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습니다.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ㄴ'은 'll'로 적지요.

그럼 아래의 표기 일람을 참고할 때, '독립문'과 '대관령'의 로마자 표기는 어떻게 될까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g, k	n	d, t	r, l	m	b, p	ng
ㅅ	ㅈ	ㅊ	ㅌ	ㅍ	ㅑ	
ae	yeo	o	wa	u	i	

독립문

대관령

- ① Dongnimmun Daegwallyeong
- ② Dongnimmun Daegwalryeong
- ③ Donggrimmun Daegwallyeong
- ④ Donggrimmun Daegwanryeong
- ⑤ Doknipmun Daegwanryeong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5)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 한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형태'는 단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고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의미'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 부류가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적용하여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 등으로 개별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에는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의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의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 양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A] 원칙적으로 선어말어미 '-ㄴ/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청유형 종결 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등과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다만, '있다'의 경우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한 장소에 머뭇'의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분류 되는데, 동사 '있다'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 준다.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 ① '옛날, 사진, 기억'은 ㉠에 해당하고 명사이다.
- ② '보니, 떠올랐다'는 ㉡에 해당하고 동사이다.
- ③ '하나'는 ㉢에 해당하고 수사이다.
- ④ '을, 가'는 ㉣에 해당하고 조사이다.
- ⑤ '즐거운'은 ㉤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12.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영희가 밥을 먹었다. / 꽃이 예뻐다.  
 영희가 밥을 먹는다. / \*꽃이 예쁘다.

Ⓑ 영희야, 밥 먹어라. / \*영희야, 좀 예뻐라.  
 영희야, 밥 먹자. / \*우리 좀 예쁘자.

Ⓒ 밥 먹으려고 식당으로 갔다. / \*예쁘려고 미용실에 갔다.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 / \*예쁘러 미용실에 갔다.

Ⓓ 나에게는 돈이 있다. / 돈이 있는 사람  
 나에게에는 돈이 없다. / 돈이 없는 사람

Ⓔ 나무가 크다. / 나무가 쑥쑥 크다.  
 머리카락이 길다. / 머리카락이 잘 긴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 ① Ⓐ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② Ⓑ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명령형·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③ Ⓒ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의도·목적어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④ Ⓓ :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로 쓰이고 있다.
- ⑤ Ⓔ : ‘크다’와 ‘길다’는 형용사, 동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

13. <보기>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로마자 표기 한글 대조표>

	자음	ㄱ	ㄷ	ㅂ	ㅌ	ㄴ	ㅁ	ㅇ	ㅈ	ㅊ	ㅌ	ㅎ
표기	모음 앞	g	d	b	tt	n	m	ng	j	ch	t	h
표기	그 외	k	t	p								
모음	ㅏ	ㅑ	ㅓ	ㅣ								
표기	a	ae	o	i								

<로마자 표기의 예>

	한글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	같이	[가치]	gachi
㉡	잡다	[잡따]	japda
㉢	놓지	[노치]	nochi
㉣	맨입	[맨닙]	maennip
㉤	백미	[뱅미]	baengmi

- ①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삭제[삭제]’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놓아[다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한여름[한너름]’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밤물[밤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14. <보기>의 ㉠ 과 ㉡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 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어간 말음 조건	형태	용례
‘ㄱ, ㅂ, ㅅ, ㅎ’일 때	-습-	돕습고
‘ㄷ, ㅈ, ㅊ’일 때	-줍-	묻줍고
모음이나 ‘ㄴ, ㄹ’일 때	-습-	보습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술-, -줍-, -습-’으로 실현되었다.

- 아래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 ㉠ )이다.  
 - 王(왕)이 부텨고 더욱 敬信(경신)흔 므스물 내스바  
 [왕이 부처께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 어간 ‘듣-’과 어미 ‘-으며’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했다.  
 - 내 아래브터 부텨고 이런 마를 묻 ( ㉡ )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으며]

- |   |      |      |
|---|------|------|
|   | ㉠    | ㉡    |
| ① | 王(왕) | 듣즈븍며 |
| ② | 王(왕) | 듣스븍며 |
| ③ | 부터   | 듣즈븍며 |
| ④ | 부터   | 듣스븍며 |
| ⑤ | 므슴   | 듣스븍며 |

15.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없음
②	㉡	명사절	없음
③	㉢	명사절	주어
④	㉣	관형절	부사어
⑤	㉤	관형절	목적어



11.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sup>6)</sup>

- < 보 기 > —
- ㉠ 놓고[노코], 낱던[나 : 턴], 쌓지[싸지]
  - ㉡ 당소[다 : 쏘], 종소[조 : 쏘]
  - ㉢ 놓는[논는], 쌓네[싼네]
  - ㉣ 앉는[안는], 많네[만 : 네]
  - ㉤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 ① ㉠을 보니,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이 오는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나는군.
- ②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ㅅ’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군.
- ③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나는군.
- ④ ㉣를 보니, 받침 ‘ㄴ’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군.
- ⑤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군.

12. <보기>에 제시된 ㉡와 ㉣의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문장에 사용된 어떤 단어가 파생어로 바뀌면 그 파생어로 인해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형용사 ‘괴롭다’는 동사 ‘괴롭히다’로 파생된다. 또한 ‘마음이 괴롭다.’의 ‘괴롭다’를 ‘괴롭히다’로 바꾸면 ‘마음을 괴롭히다.’와 같이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품사	문장 구조	
○	○	..... ㉡
○	×	
×	○	..... ㉣
×	×	

(○ : 달라짐. × : 달라지지 않음.)

- |                      |                    |
|----------------------|--------------------|
| ㉡                    | ㉣                  |
| ① (풀을) 깎다 → (풀이) 깎이다 | (발을) 밟다 → (발이) 밟히다 |
| ② (풀을) 깎다 → (풀이) 깎이다 | (불이) 밟다 → (불을) 밟히다 |
| ③ (방이) 넓다 → (방을) 넓히다 | (책을) 팔다 → (책이) 팔리다 |
| ④ (방이) 넓다 → (방을) 넓히다 | (굽이) 높다 → (굽을) 높이다 |
| ⑤ (음이) 낮다 → (음을) 낮추다 | (문을) 밀다 → (문을) 밀치다 |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6) 2018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문법 11번~15번

13. <보기>의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결석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승호는 필기한 공책을 ㉡주고 갔다. 승호는 역시 듣직한 ㉢형같다. 이제 내가 심혈을 ㉣기울일것은 ㉤공부 뿐이다.

- ① ㉠: ‘-르지’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한다.
- ② ㉡: ‘갔다’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주고’와 ‘갔다’를 붙여 ‘주고갔다’로 수정한다.
- ③ ㉢: ‘같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과 띄어 ‘형 같다’로 수정한다.
- ④ ㉣: ‘것’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기울일’과 띄어 ‘기울일 것’으로 수정한다.
- ⑤ ㉤: ‘뿐’이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공부’와 붙여 ‘공부뿐이다’로 수정한다.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에서는 주체나 객체로 표현되는 인물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 대개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현대 국어의 간접 높임에서처럼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임으로써 실제 높여야 할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하였다.

- (1) 太子(태자) | 東門(동문) 밧기 나가시니  
(태자께서 동문 밖에 나가시니)
- (2) 부터 누니 비록 밝ㄴ시나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1)의 ‘-시-’와 (2)의 ‘-으시-’는 모두 현대 국어의 ‘-(으)시-’처럼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1)과 (2)에 쓰인 ‘-(으)시-’의 쓰임에는 차이가 있다. 즉 (1)에서는 주체인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2)에서는 ‘부터’의 신체 부분인 ‘눈’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터’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모시다’, ‘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활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였다.

- (3) 너희 스승을 보습고져 흐노니  
(너희 스승을 뵈고자 하나니)
- (4) 부터 敎化(교화)를 돕습고  
(부처의 교화를 돕고)

(3)의 ‘-습-’과 (4)의 ‘-습-’은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3)과 (4)는 모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이느냐 간접적으로 높이느냐에 차이가 있다. 즉 (3)에서 ‘-습-’은 객체인 ‘스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비해, (4)에서 ‘-습-’은 ‘敎化(교화)’를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부터’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ㄱ~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王(왕)이 일후(일후)를 濕波(습파)로 러시니  
(왕의 이름은 습파이시더니)

ㄴ. 님금(님금)은 은사(은사)를 값습고저  
(임금의 은사를 값고저)

ㄷ. 龍王(용왕)이 世尊(세존)을 보습고  
(용왕이 세존을 보고)

ㄹ. 太子(태자)가 講堂(강당)에 모도시니  
(태자께서 강당에 모으시니)

ㅌ. 諸佛(제불)을 供養(공양)하<sup>ㅅ</sup>습게 호쇼셔  
(제불을 공양하게 하소서)

- ① ㄱ에서는 '-시-'를 통해 '일후'를 높임으로써 '王(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② ㄴ에서는 '-습-'을 통해 '은사(은사)'를 높임으로써 '님금'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③ ㄷ에서는 '-습-'을 통해 '세존(세존)'을 높임으로써 '龍王(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④ ㄹ에서는 '-시-'를 통해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⑤ ㅌ에서는 '-습-'을 통해 '諸佛(제불)'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15. 다음은 윗글과 관련된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학생 2'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활동] 문맥을 고려하여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시오.**

- 우리 할아버지의 치아는 여전히 ㉠ 튼튼하시다.
- 언니가 고모님을 공손하게 안방으로 ㉡ 모시다.
- 아버지께서는 저녁거리를 사러 장에 ㉢ 가시다.
- 형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생각이 ㉤ 타당하시다.

**학생 1**

나는 '㉡,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학생 2**

나는 '㉡'와 '㉠, ㉢, ㉤'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 ① 소유물을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② 높임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가의 여부
- ③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
- ④ 신체 부분을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활용되는가의 여부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7)

< 보 기 >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슬,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ㅐ	ㅙ	ㅓ	ㅕ
저모음		ㅘ		ㅚ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③ 3개의 평순 모음
- ④ 3개의 고모음        ⑤ 4개의 후설 모음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ㄹ'로 끝나는 명사 '발', '술', '이틀'이 ㉠ '발가락', ㉡ '소나무', ㉢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ㄹ'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ㄹ'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발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발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발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발 엄지 가락(엄지발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발 가락'은 현대 국어 '발가락[발가락]'이 되었다.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술'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ㄹ'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술'의 'ㄹ'이 탈락하였다.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틀'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틀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

7)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11-15번 문법 (2018년 11월 15일 시행)

[A] 은 ‘이튿 날’, ‘이튿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튿 날’은 ‘이튿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ㄹ’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뭉 사람’에서 온 ‘뭉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 보 기 >

무술(물+ 술)	쌀가루(쌀+ 가루)
날알(날+ 알)	술방울(술+ 방울)
선달(선+ 달)	푸나무(풀+ 나무)

- ① 술방울, 무술, 날알                      ② 술방울, 푸나무, 선달
- ③ 푸나무, 무술, 선달                      ④ 쌀가루, 푸나무, 날알
- ⑤ 쌀가루, 술방울, 선달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탐구 주제]**  
 ◦ ‘숟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ㄷ’일까?

**[자료]**

중세 국어의 예	
· 술 자빅며 저 논느니(숟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숲 근 (숟가락의 끝), 젓 가락 근 (젓가락 끝), 수저 (수저)	
· 물 (무리), 뭉 사람 (뭉사람, 여러 사람)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 숟가락 장스 (숟가락 장사)	· *술로 밥을 뜨다
· 뭉사람 (뭉사람)	·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
	· 밥 한 술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중세 국어 ‘술’과 ‘저’는 중세 국어 ‘이튿’처럼 자립 명사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술’과는 차이가 있군.
- ②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 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 ③ 중세 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튿’이나 ‘물’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할 수 있었군.
- ④ 근대 국어 ‘숟가락’이 현대 국어에 와서 ‘숟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 ⑤ 현대 국어 ‘숟가락’과 ‘뭉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숲’과 ‘뭉’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군.

14.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 ① ㉠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 ② ㉡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 ③ ㉢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 ④ ㉠의 ‘좋은’과 ㉢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 ⑤ ㉡의 ‘눈이 부시게’와 ㉢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15.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와 예문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약속 날짜를 너무 **발게** 잡았다.  
 ㉡ 서로 **발게** 앉아 더위를 참기 어려웠다.  
 ㉢ 시간이 더 필요한데 체출 기한을 너무 **바투** 잡았다.  
 ㉣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투** 다가가 두 손을 움켜쥐었다.

㉠

①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씩** 가깝게.  
 ②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

**발다행**

①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  
 ② 길이가 매우 **짧다**.  
 ③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  
 ④ 우리 아들은 입이 너무 **발아서** 큰일이야.  
 ⋮

- |   |       |   |   |
|---|-------|---|---|
|   | ㉠     | ㉡ | ㉢ |
| ① | 발게[부] | ㉠ | ㉡ |
| ② | 발게[부] | ㉢ | ㉣ |
| ③ | 발게[부] | ㉡ | ㉣ |
| ④ | 바투[부] | ㉢ | ㉠ |
| ⑤ | 바투[부] | ㉣ | ㉠ |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 정 답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11번~15번									
11	③	12	④	13	④	14	①	15	④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11번~15번									
11	④	12	③	13	④	14	⑤	15	④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1번~15번									
11	⑤	12	④	13	①	14	③	15	④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11번~15번									
11	③	12	②	13	④	14	①	15	①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1번~15번									
11	⑤	12	④	13	①	14	③	15	④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11번~15번									
11	②	12	③	13	②	14	③	15	③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번~15번									
11	③	12	②	13	⑤	14	③	15	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http://www.facebook.com/LegendStudy)

👉 질문/학습 상담, 오류제보, 자료요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레전드스터디 닷컴